

도시재생 뉴딜 공모 6곳 선정

전북도, 국비 454억원 확보... 올해 13곳 선정으로 전국 최다·역대 최고

전북도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2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공모 6곳(전주시 2곳, 남원시 1곳, 김제시 1곳, 무주군 2곳)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4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중앙공모 사업에 전국 최대로 13곳이 선정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총 38회에 국비 3,230억원을 포함한 총 5,504억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거점으로 조성해 도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정책이 기존 시행했던 대규모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행력이 높은 인정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주목, 공모에 사전 대응했다.

공모계획이 확정된 6월부터 준비된 사업계획을 활용해 공모 신청하고, 서면·현장·발표 등 3차례 국토부 평가에도 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를 통해 사업 적격성 검증 및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소속)' 심의 의결을 통과, 최종 공모사업이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

업 관리자 3곳, 인정사업 3곳이다.

전주시 ▲'서로의 우산이 되는 통합 돌보미 지우산마을' ▲'오손도손 그린 신북마을', 김제시 ▲'지평선 역전마을 신바람 新風', 남원시 ▲'(구)미도당 문화저장소 리뉴얼', 무주군 ▲'반디내내 지원센터 조성' ▲'무풍 어울림센터 project'이다.

전주시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마을'은 노송동, 진북동, 인후2동 내 노후 주거지에 주민 교류공간, 공용주차장, 문화카페 등을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집수리,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 '오손도손 그린신북마을'은 팔복동 내 빈집 철거를 통한 서로돌봄 거점 및 생활 SOC, 행복주택 50호를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주택정비, 집수리교육, 마을 축제 등이 시행된다.

김제시 '지평선 역전 마을 신바람 新風'은 신송동 내 구시가지에 어울림센터,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상생협력공간 등을 조성하고, 김제 특산물인 쌀을 활용한 협동조합 운영, 수학체험, 마을 탐방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인정사업' 3곳은 시가지 내 장기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상 문제가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 전시실, 복지시설, 마을 카페, 사랑방 등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선정된 38곳 중 올해까지 3곳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6곳, 2022년에는 7곳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 가로환경 정비 등 지역주민이 사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거점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해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거버넌스 연대 강화 등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은 지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앞으로 공직자와 민간투자가 선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2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공모 6곳(전주시 2곳, 남원시 1곳, 김제시 1곳, 무주군 2곳)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4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올해 중앙공모 사업에 전국 최대로 13곳이 선정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총 38회에 국비 3,230억원을 포함한 총 5,504억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거점으로 조성해 도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정책이 기존 시행했던 대규모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실행력이 높은 인정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주목, 공모에 사전 대응했다.

공모계획이 확정된 6월부터 준비된 사업계획을 활용해 공모 신청하고, 서면·현장·발표 등 3차례 국토부 평가에도 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대외적으로 중앙부처에 수시 건의를 통해 사업 적격성 검증 및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소속)' 심의 의결을 통과, 최종 공모사업이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

전북도, 음식점에 방역물품 지원

전북도가 음식점 내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비말차단 칸막이, 비치용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식 표식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세트를 음식점 700개소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비말차단칸막이 870개 설치 지원한 데 이어, 추가예산을 확보해 칸막이 500개를 추가 제작한다.

또, 음식점 내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칸막이와 함께 비치용 마스크와 사회적거리두기식 표식 삼각대를 방역세트로 구성해 배포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3밀(밀집, 밀폐, 밀접) 환경이 우려되는 유흥가, 대학가, 맛집, 등산로 주변 음식점 등에 실정에 맞게 우선 지원해 방역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계자 연찬회

전북도는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계자 연찬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음 해 사업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도와 시군, 제공기관 관계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성과평가 우수 시·군 등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2021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을 공유했다.

시·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남원시, 우수기관 군산시, 장려기관 전주시, 도약기관으로 고창군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기관에는 전북도지사 표창을, 도약기관에는 전

전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사상 최대

가입 농가 전년 대비 29% 증가... 도내 지역농협·품목농협서 가입 가능

도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사과, 배, 단감, 벼 등 67개 품목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년 7만5,718ha 대비 20% 증가한 9만1,776ha (2020년 11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농가에 가입비 608억원 중 503억원을 지원했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8

ICT·5G 기술 접목 '봉제 스마트팩토이' 개소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섬유산업에 5G와 ICT 기술을 접목한 '봉제 스마트팩토이 실증사이트'가 전국 최초로 전북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22일 익산시 예코융합섬유연구원 일원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과 (주)다온오토메이션 등 컨소시엄 기업(10개 기업)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봉제 스마트팩토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된 실증사이트는 국내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 봉제 공장이다. 호남 최초 5G 섬유봉제 분야 실증사이트가 된다.

주요 적용기술은 봉제 공정에 빈도가 가장 높은 인터록, 오버록, 분봉의 3가지 공정에 대한 로봇 구현과 5G 기반 MEC를 통한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로 상시모니터링과 불량품에 대한 빠른 불량 검출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GV를 사용한 물류 무인 운반 등 첨단봉제 기술로 향후 5G 봉제 로봇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제 현장에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작업공간과 장비를 유지한 채 단순공정 인력의 일부만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봉제인력의 고령화와 인

전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사상 최대

가입 농가 전년 대비 29% 증가... 도내 지역농협·품목농협서 가입 가능

도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사과, 배, 단감, 벼 등 67개 품목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년 7만5,718ha 대비 20% 증가한 9만1,776ha (2020년 11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농가에 가입비 608억원 중 503억원을 지원했다.

올 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7~8월의 집중호우, 태풍 등 8

건의 자연재해로 3만4,000여ha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 원비 등 14개 시·군 2만7,000여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411억원을 지원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인 재해보험금은 전년 797억원 대비 64% 증가한 1,306억원으로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와 시군이 30~45%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는 5~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실제, 벼를 경작하는 김제시의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 17만원(전체 보험료 236만원)만 부담하고 가입해, 약 76배인 1,35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정읍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B씨 역시 자기 보험료 119만원(전체 보험료 627만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고 자부담의 약 63배인 7,51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ICT·5G 기술 접목 '봉제 스마트팩토이' 개소

호남 최초 5G 섬유봉제 분야 실증사이트 구축... 관련 기술 우수성 홍보·섬유산업 고도화 등 기대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섬유산업에 5G와 ICT 기술을 접목한 '봉제 스마트팩토이 실증사이트'가 전국 최초로 전북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22일 익산시 예코융합섬유연구원 일원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과 (주)다온오토메이션 등 컨소시엄 기업(10개 기업)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봉제 스마트팩토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축된 실증사이트는 국내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 봉제 공장이다. 호남 최초 5G 섬유봉제 분야 실증사이트가 된다.

주요 적용기술은 봉제 공정에 빈도가 가장 높은 인터록, 오버록, 분봉의 3가지 공정에 대한 로봇 구현과 5G 기반 MEC를 통한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로 상시모니터링과 불량품에 대한 빠른 불량 검출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GV를 사용한 물류 무인 운반 등 첨단봉제 기술로 향후 5G 봉제 로봇 확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제 현장에는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작업공간과 장비를 유지한 채 단순공정 인력의 일부만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봉제인력의 고령화와 인



전북도는 22일 익산시 예코융합섬유연구원 일원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과 (주)다온오토메이션 등 컨소시엄 기업(10개 기업)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봉제 스마트팩토이 개소식을 개최했다.

구인력 단절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이트는 2021년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지역의 특화 섬유 제품을 적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힘을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비대면 산업 등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김양욱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